

트렌드 & 스타일

40대 직장여성

옷 입기가 경쟁력이다



패션 타이츠로 늘씬한 각선미를

맨 다리를 내놓기에는 어색해진 요즘같은 날씨에는 타이츠가 제격이다. 올 가을 여성들의 다리는 간결하고 세련된 디자인의 타이츠가 감칠맛 전방이다.

화려한 색상과 꽃무늬, 하트 무늬 등 여성스러운 무늬로 장식한 예년에 비해 간결하고 세련된 디자인의 타이츠가 매장을 꾸미고 있다. 깔끔하고, 단정한 느낌의 테일러드 재킷과 심플한 디자인 스커트 등 심플한 패션 경향이 타이츠에도 영향을 미쳤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일반 스타킹보다 조금 두꺼운 타이츠는 다리를 따뜻하게 감싸줄 뿐 아니라 겨울 패션에 포인트를 주는 역할도 톡톡히 해낸다. 의상의 마지막 포인트 액세서리로 불릴

차분한 컬러·민무늬 유행 몸매 보정 등 기능성 강화

정도가. 올해는 절제된 스타일에 맞춰 블랙, 그레이, 와인, 네이비 등 차분한 컬러의 민무늬 타이츠가 선보이고 있다. 기능성도 좋아졌다. 거들 기능이 포함돼 몸매 보정 효과가 있는 제품이 있는가 하면, 평면 봉제 기법이 사용돼 착용감이 개선된 제품도 있다. 속가공이나 방취사를 써 발냄새를 예방해주는 타이츠, 세균 번식을 방지하는 원사를 쓴 제품도 나와있다.

비비안은 긴 점선으로 스트라이프 무늬를 넣어 세련된 스타일을 낸 타이츠와 도트 무늬를 넣어 귀엽고 세련된 느낌을 낸 타이츠를 판매하고 있다. 키슬렌은 사냥개 이빨 모양의 무늬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하운드투스체크 타이츠를 내놨다. 개성있고 강렬한 느낌으로 심플한 의상에 포인트를 줄 수 있다.

이탈리아 수입브랜드 시지(sisi)는 굵은 사선 무늬로 강렬한 느낌을 내는 타이츠를 내놨다. 굵기가 다른 선으로 무늬를 표현해 세시하고 세련된 느낌을 강조했다.

비비안 스타킹팀 조영아 MD는 "올 가을에는 차분하고 세련되면서도 장식 효과를 낼 수 있는 타이츠가 유행할 전망"이라며 "한동안 인기를 끌지 못했던 검정색 타이츠나 민무늬 타이츠도 올 가을에는 오히려 개성있는 느낌으로 입을 수 있고, 세련된 컬러나 무늬로 시선을 끄는 타이츠를 활용하면 멋있해질 수 있는 심플한 의상에 포인트를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작성기자 ks@kwangju.co.kr



"오늘은 뭐 입지?"

직장 여성이라면 매일 아침마다 하는 고민 중 하나다. 특히 사람을 많이 상대하는 직업일 수록 옷 선택이 망설여지기 마련이다. 잘 차려입은 의상이 호감도를 상승시키는데 절대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행을 선도하는 20대 여성들과 달리, 몸매 살이 붙고 유행에 둔감해지기 쉬운 40대 여성들은 '패션 경쟁'에서 소외되기 일쑤다. 경영 컨설턴트인 '데츠시 후쿠시마'는

"좋은 인상을 주는 패션은 당신 자신의 브랜드 이미지를 높여준다"라고 말한 바 있다. 삼성생명 상무직에서 FC로 근무하는 차정희(45·사진)씨는 "고객들을 자주 만나다 보니 캐주얼보다는 정장 스타일을 선택하게 된다"고 말했다. 백화점 등을 쇼핑할 때도 '예쁘다'는 옷보다는 '적당하다' 옷을 선택하게 된다는 것. 그러다보니 다소 밋밋한 차미정장을 입는 경우가 많다. '조용한 변신'을 꿈꾸는 차씨와 함께 40대 직장 여성을 위한 코디법을 알아봤다.

트렌드 따르되 너무 튀지 않게

H라인 스커트 날씬.. 뱃살은 큰 벨트로 살짝

■ 단순함에 포인트를 주라.

"트렌드를 따르되 너무 튀지 않도록 코디하는 것이 중요해요."

롯데백화점 광주점 '아이즈비버'의 브랜드 매니저 정희숙(46)씨의 충고다. 정씨의 조언에 따라 보라빛의 스커트와 리본이 달린 블라우스, 벨트 소재의 재킷으로 갈아입은 차씨는 훨씬 화사해 보였다.

40대 직장 여성들에게 정씨가 추천하는 의상은 단정한 H라인 스커트와 리본이 나 프릴 등 장식이 달린 블라우스. 아래로 갈수록 넓어져 몸매를 감추는 A라인 보다는 H라인 스커트가 훨씬 날씬해 보인다고 말한다. 상의 역시 장식이 있는 제품을 선택해 풍성하고 화사한 분위기를 연출하라고 조언했다.

'블랙'이 인기를 끌고 있는 이번 가을 겨울에는 블랙을 중심으로 보라색, 회색 등 포인트 컬러를 이용해 멋스러움을 강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차 씨처럼 보라색 스커트에 검정색 재킷을 입는 식이다. 다소 부담스러운 컬러도 무난하게 소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칙칙한 블랙 의상에 포인트 색상은 화사함까지 더해준다.

매력 되찾으려면

장롱 속 옷 버려라

후출근한 옷차림, 뽀글뽀글한 퍼머 머리..

'아줌마'라는 이름으로 동경그리던 40대 중년 여성의 이미지다. 과연 40대 아줌마에게 패션은 없는 걸까. 스타일 및 패션 컨설팅 회사 '인사이드 아웃'의 대표 브랜드 컨설턴트인 그의 저서 '고혹의 절정 40'(웅진심사·9천800원)에서 중년 여성들이 자신만의 숨겨진 매력을 발산하고, 보다 아름답게 보일 수 있는 패션 전략을 소개한다. 우선 옷장 속의 오래된 옷을 '버려라'고 말한다. 유행은 돌고돌기보다는 작은 꽃무늬 하나라도 변하기 때문이다. 또 옷장 속의 옷들이 자신의 스타일과 맞지 않을 때 새로운 스타일에 도전하기 점점 어려워진다. 결국 옷장엔 비슷한 컬러의 비슷한 디자인의 옷으로 채워지게 된다. '세일'과 '이발'하는 것도 멋쟁이가 되는 지름길이다. 단지 가격이 싸다는 이유로 자신에게 어울리지 않는 옷을 구입하기보다는 그 돈을 모아 제대로 된 옷을 장만하는 것이 자신에게 투자하는 방법이다.

■ 몸매 결점을 가려라

팔, 다리는 가늘지만 출산 등으로 볼록하게 나온 배가 주부 직장 여성들의 고민 중 하나다. 옷 입는 방법 중 하나는 이런 결점을 감추는 것. 배가 나온 여성이라면 흰색의 벨트를 착용해 뱃살을 살짝 감춰주는 것도

요령이다. 키가 작은 여성이라면 발목까지 오는 10부 바지에 영클 부츠, 엉덩이를 살짝 덮는 길이의 하트 반 코트를 코디해 작은 키를 커버할 수 있다.

의상이 자유로운 직장이라면 청바지를 활용해 젊고, 날씬하게 변신해 보자. 깔끔한 니트에 짙은 컬러의 청바지를 매치하면 훨씬 어려보이게 연출할 수 있다. 톤 톤보다는 앞코가 뾰족한 디자인의 구두가 다리를 더욱 길어보여 준다.

/\*작성기자 ks@kwangju.co.kr

/\*사진 = 고정식기자 ksgo@kwangju.co.kr

/\*사진 촬영 협조 = 롯데백화점 광주점



침단월계공인중개사
☎ (TEL) 972-4585 TEL 011-804-6205
동림2지구 신축, 각종 100평 병·의원, 학원, 상가 1층 대형마트 확정
침단중심 상업지역
침단 원룸 건물급매
침단 인근 자연·생생녹지
싼 공장, 창고부지 '급매'

금보부동산컨설팅
☎ (TEL) 261-8949 TEL 011-802-2233
쌍방매매
전원임대
건물매매
주유소매매
금매물건

민음공인중개사
☎ (TEL) 971-4911 TEL 011-827-0878
침단지역, 평양동, 월계동 상업지역 상가건물 매도
침단지역 아파트 상가 매도
침단지역 음식점, 호프집 임대
침단지역 상업지역 토지

(주) 홈컨부동산 리서치 중개
상무지구 시청앞 한국은행후문옆
Tel 0621233-2222 www.homecon.co.kr
1. 빠른 거래가 가능합니다.
2. 광주 및 인근 2,500여개 경제물건을 매일 분석합니다.
3. '매수자의 눈'보다 더 정밀하게 검증합니다.

대인부동산컨설팅
☎ 011-625-0510
퓨전 레스토랑 임대
학원임대
영어학원 임대
토지매도

중개법인 리치부동산관리
☎ 0621233-9311~3
화순군 남면 대곡리 청용골
시설품: 파이프리플하우스
현황: 평탄한 지형임
계곡에 접함

(주) 옥션 코리아 법원 경매
☎ 222-8446
아파트
근린주택
주택+대지
다가구(원룸)
공공장